



전북도는 지난 17일 고물가 대응 및 민생안정을 위한 전북도-민간전문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14일 시군 경제부서장과의 물가인정 대책회의 이후 연이어 민간전문가와 물가인정 대책마련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면서, 물가인정과 민생회복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위한 노력을 아끼아 않았다

전북도, 전문가들과 고물가 대응 대책 속의

시·군 경제부서장 회의 개최 ·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 민생 · 물가 관련 지원 논의 · 지방공공요금 최대한 억제 상 · 하수도요금 · 쓰레기봉투 요금 등, 10개 시군 동결 예정... 남원 · 김제 · 장수 · 무주는 인상분 감면 계획

전북도는 지난 17일 고물가 대응 및 민생안정을 위한 전북도-민간전문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14일 시군 경제부서장과의 물가인정 대책회의 이후 민간전문가와 물가인정 대책마련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물가인정과 민생회복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위한 노력을 아끼아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택시, 시내버스, 도시가스(소매)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짓는 용역 추진결과를 부서별로 발표했다. 택시요금은 지난 2019년 5월 기본요금 인상(2,800원→3,300원) 이후 올레 상반기 중 요금조정 용역을 마무리 짓고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타 시도의 인상수준 및 물가상향

을 신중히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도시가스(소매)요금은 작년에 평균 1.69% 인하였는데, 7월경 용역이 마무리되면 최종 요금결정을 위한 물가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공급비용을 결정할 예정으로 동결 · 인하할 방침이다. 시내버스 요금은 2021년 7월 버스요금 인상(200원) 이후 올레는 요금인상 등은 없을 예정이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인 상 · 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 요금도 10개 시군이 동결할 예정이다. 요금을 인상한 4개 시군(남원, 김제, 장수, 무주)도 인상분을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착한가격업소 및 농 · 어민지원 대책,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발표됐다. 먼저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로 주변상권의 물가인정에 도움을 주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도 제시됐는데, 업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3월 중 업소당 85만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 · 어업인에는 면세유 가격 상승에 따른 농농업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201억 원,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34.5억 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

88.4억 원도 예비비로 편성해 도내 한부모가족, 취약노인 등 4만4,200여 가구에 4월 중순까지 현금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에너지 비우려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전기 · 도시가스 요금을 4인 이상 가구 최대 67만7,000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서장은 "고물가상황에서 지방공공요금의 동결에 동참해주시는 14개 시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시군의 의견을 청취하고 물가인정 대책에 적절히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민의 온정어린 마음 담아... 튀르키예 재건 의지 응원

김관영 지사, 긴급구호금 지원 주문... "피해 복구의 씨앗 되길" 형제의나라 안타까운 사연에... 긴급구호금 10만 달러 지원 결정

막대한 지진 피해를 본 튀르키예를 돕기 위한 온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도도 도움을 손길을 건네기로 결정했다. 전라북도는 국가적 인연(6.25, 파병국)과 피해복구의 중대성 및 시급성을 고려해 예비비로 긴급구호금 10만 달러를 편성해 지원하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도는 튀르키예가 조속히 피해를 복

구하고 안정되기를 바라는 위로의 마음과 현재 수많은 이재민 발생으로 도움이 절실한 형제의 나라를 도와야 한다는 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전북도의회와도 소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국제개발협력 공여국으로서 인도적 차원의 결정을 내리기로 뜻을 모았다. 구호금은 국제구호단체를 통하지

않고 2월 중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이 누리집에 공개한 대사관 공식계좌로 송금할 계획이다. 대사관 공식 기부금 송금 계좌로 구호금을 직접 송금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원금 그대로 튀르키예에 지원되는 이점(튀르키예 대사 인터뷰)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세일즈 외교 출장 중인 김관영 지사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긴급구호금 지원을 직접 지시하며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도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위로가 전해져, 소중한 재건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튀르키예와의 소중한 인연의 끈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발생 시, 중국 자매 · 우호 지역에서 마스크를 지원받은 바 있으며, 전북도 또한 미국 등 자매우호지역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협력을 이어 가고 있다. 앞으로도 전북도는 국제교류 외연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ODA) 사업과 관련된 활동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 어르신 복지서비스 전국 '최고'

노인복지관 3곳, 전국평가서 최고등급 획득 쾌거
익산 노인종합복지관, 5회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

익산시가 제공하고 있는 어르신 복지 서비스가 전국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았다. 지난 17일 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3곳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회 복지시설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 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해당 복지관은 남부권 · 황등 · 모현 등에 위치한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이다. 특히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은 개관 이래 5회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현재 지역에는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까지 총 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은 개관 3년 미만이라서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규모의 평가로 전국 21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복지관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서비스 등 6개 항목에 대해 A(최고)부터 F(최하)등급까지 평가해 등급을 매긴다. 최고등급을 받은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는 총 6개 항목, 36개 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활동부터 교양 · 취미생활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소득보장 · 재가복지 등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 어르신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과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신흥복지재단에서 위탁해 운영되고 있으며 남부권과 황등 노인종합복지관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평가로 익산시는 명실상부한 어르신 복지 선진지로 등극하게 됐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도, 특별자치도 성공 위한 공무원 교육

전북도는 2024년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도내 14개 시·군 공무원의 역량 결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시·군의 특별자치도 업무 총괄 및 분야별 특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일 김관영 도지사와 14개 시·군수가 맺은 '도·시·군 업무협약' 실현의 일환으로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도와 시·군 특례 발굴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성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선 교육은 △특별자치도 추진배경과 의미, △달라지는 점과 변화되는 미래상 △추진 과제 및 방향, △특례 발굴 방향 및 사례와 질문 ·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특례 발굴은 혁신성장, 인재거점, 균형발전, 자치분권 분야로 진행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도,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착수

전북도는 노후 슬레이트 주택으로 인한 도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군과 함께 204억원을 들여 2023년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방개량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사업 계획 물량은 총 5,250동이다. 이중 주택 철거 처리는 4,440동, 창고 등 비주택 철거 처리는 391동, 지방

개량은 419동이다.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1동당 352만 원(예산잔여시 최대 700만 원), 비주택 200㎡ 이하는 철거 비용 전액,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이다. 우선지원 가구일 경우 주택은 전액 지원, 지방개량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재훈 기자

모집 2023학년도 1학기 3월 개강 **상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리더쉽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전문가에게 배우세요. 현대인의 인기과제 이오니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보람과 당당함은 물론 큰 변화를 드립니다.

김양욱 교수

-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권역교수 및 권역교수
 - 전북대학교 토론에 면접담당교수
 - 스피치사격서원 집행위원장
 - 한스스피치, 동원협회 권역회장
 - 전북의제교육원 및 기획, 단과 특강교수
 - KBS TV아침매출, MBC TV, JT, TBS로 원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니스트 · 심리상담사
 -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영어유니버셜' '나쁜 세운, 빌, 빌' '스피치 101' 등
 - 스피치 저서, 평생교육사, 시낭송서도사 등 자격증 소지자

(전북도내 각 평생교육원 원우모임)

- 전주교육대학교(전주, 임실, 완주)
- 군산대학교(군산, 서천)
- 원광대학교(익산, 충남)
- 우석대학교(전주, 완주, 진안)
- 전북과학대학교(정읍, 고창)
-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순창, 장수, 전남)
-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부안)

* 각 평생교육원 인접 시 · 군을 선택 바랍니다.
* 전주지역과 익산지역은 주간과정도 있습니다.

상담전화 : 285-6676 · 231-6669 · 010-7304-5665(주 · 아)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